DBpia

교인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

저자 (Authors) 양명수

출처 (Source) 기독교사상 39(2), 1995.2, 25-34(10 pages)

발행처 (Publisher) 대한기독교서회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135801

APA Style 양명수 (1995). 교인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 기독교사상, 39(2), 25-34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1/08/11 10:4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교인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

양 명 수
(배재대 교수 · 기독교윤리)

Ⅰ. 우리에게 초월이 있는가

우리에게 초월이 있는가? 그 동안 우리는 기독교의 초월이란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세상을 등지는 것이라도 좋다. 세상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도 좋다. 어떤 모양으로든 세상의 흐름에 딸려가지 않으려는 초월성이 우리에게 있는가? 종교의 핵심은 초월이다. 참여 이전에 초월이다. 참여라는 말은 초월하는 사람만 쓸 자격이 있다. 세상 속에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는 거지! 특별히 참여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다. 세상의 흐름을 넘어설 줄 알면서 세상에 들어가는 것, 또는 세상 한 가운데서 세상을 넘어서며 세상과 씨름하는 것 그것을 참여라 한다. 세상을 넘어서는 것과 세상 속에 있는 것은 한 짝을 이룬다. 초월과 참여는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짝 개념이다. 초월 없이 참여라는 말을 쓸 수 없고 참여 없이 초월이라는 말을 쓸 수 없다. 적어도 성서의 영성이 지키려고 한 것은 그 점이다.

성령 충만은 그 초월과 참여의 긴장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다. 초월하면서 참여하고 참여 속에서만 초월을 맛본다. 초월은 지금 여기서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이요, 참여는 초월의 수직적 역동성을 수평으로

Cprgt()20 uiMdaGt 이화여자대학교 | IP:203.255.***.68 | Accessed 2021/08/11 10:43(KST)

전환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만남에서 생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役事)가 세상의 역사(歷史) 한가운데서 이루어짐이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심이다. 피스톤의 수직 운동이 자동차의 수평 운동을 일으키듯이, 기독교인이 체험하는 초월은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참여라고 하는 수평 운동의 에너지는 초월이라는 수직 운동에서 온다. 수직 운동에서 오는 수평 운동, 그것은 새 세상을 만드는 것이며, 필요하다면 세상과 거꾸로 감으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초월은 결국 세상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바꾸고 살린다. 거스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만 사실은 모두가 그것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그 가운데서 나도 신음하고 있지 않은가? 세상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면 누가 세상을 살릴까? 누가 나를 살릴까?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이 한다. 소금이 그 짠 맛을 잃으면 버림받는다고 했는데……, 한국교회가 계속 존속하리라는 보장이 있을까? 한국교회가 100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100년은 짧은 기간이다. 그 이상의 역사를 지닌 교회들이 썰물처럼 사라져 버린 곳이 얼마든지 있다.

초월이 참여를 불러일으키지만 초월을 참여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마치 상징이 생각을 불러일으키지만 상징을 생각으로 다 풀 수 없는 것과 같다. 상징은 그것을 푸는 나의 생각보다 훨씬 풍부한 신비다. 그렇듯이 초월은 지금 현재 나의 참여 방식보다 훨씬 풍부한 신비일 수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상징을 생각으로 밖에는 접근할 수밖에 없듯이 초월도 참여를 통해서만 맛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메노나이트나 퀘이커 같은 소종파를 보자. 초월을 참여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게 된다. 세상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나름대로 공동체를 만들어 복음에 충실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권세를 따로 만들지도 않고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치 싸움도 벌이지 않고 재물에 욕심을 내지도 않는다. 거기에는 분명히 초월의 모습이 있다. 참여 없는 초월이라고나 할까? 그러나 그런 운동들의 존재 의의는 세상에 참여하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파묻히지 않게 경고하는 데 있다. '참여 없는 초월'을 사는 이들은 참여하는 이들의 참여가 '초월 없는 참여'가 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한다. 내가 볼 때 모든 기독교 운동은 결국

Cprgt()20 uiMdaCt 이화여자대학교 | IP:203.255.***.68 | Accessed 2021/08/11 10:43(KST)

세상을 위한 것이다. 참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참여는 초월이 끄는 참여가 되어야 한다. 세상 속에서 엉켜 사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잘하고 있다. 그것은 초월도 아니고 참여도 아니다. 초월성은 세상 흐름에 대해 의연하거나 초연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기독교윤리는 그런 초월의 열매다. 종교인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 일반인보다 더 욕을 듣는 것도 그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의 내면 원리를 잘 알지 못한다. 다만 그 윤리 효과를 보고 판단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역시 예수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먼…….' 초월에 대한 기대다. 초월 없이 하는 참여는 세상을 본받는 것이 된다. 세상을 본받게 되어 있다. 성공했다고 해서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다. 성공의 원리가 세상 방식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본받은 것이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한 후, 어떻게든 이겨놓고 본 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성서의 하나님이 사람 뒤나 따라다니면서 사람이 한 일을 정당화해 주는 분이란 말인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다하셨다고 하면 안 된다. 그 때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말은 감사가 아니라 자기 정당화일 뿐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자기정당화, 거기엔 무서운 사탄의 권세가 뻗쳐 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죄를 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편리한 도구가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인들이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끌어댈 때 죄의식도 없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파렴치해질 수 있다. 만일 한국교회가 그런 기독교인들로 가득 차 있다면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복음이 성장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 된다. 그리고 복음이 없는 교회는 마침내 사라지고 말 것이다.

Ⅱ. 본받지 말아야 할 '세상 풍조'

사도 바울의 얘기가 새롭게 들린다. 초월은 결국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세상이란 무엇인가? 결국 사회가 세상이다. 새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란 사람과 사람의 관계다.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이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다.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Cprgt()20 uiMdaCt 이화여자대학교 | IP:203.255.***.68 | Accessed 2021/08/11 10:43(KST)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관계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다. '풍조'는 '에토스'요 윤리의 문제며 인간 관계의 문제다.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주일날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가지 말고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얘기다. 인간 관계가 달라야 한다는 얘기다. 세상 사람들이 실리와 이익을 따라 그리고 권력 형성을 따라 인간 관계를 형성한다면 기독교인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기독교윤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로 푸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인간 관계와 다른 뭐가 나와야 한다는 말이다. 기독교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는 '다름'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린 것 같다.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세상 사람에 비해서 기독교인이 성공할 비율이 더 많다는 점에서 다른가? 아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 어디다 가치를 두느냐 하는 점에서 달라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기독교인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세속인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무조건 달라서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을 중요시하는 한 세상과 늘 다를 수는 없다. 기독교인도 세속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성도여야 한다. 기독교인이 성도인 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긴장'이 있어야 한다. 그 긴장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긴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인의 영성이 반문화(christ against culture)나 탈문화(christ beyond culture)로 가거나 또는 그 반대로 문화에 아예 뒤섞여 버리면(christ of the culture) 그런 긴장이 없다. 그러나 성서는 우리에게 긴장을 요구한다(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문화를 바꾸려는 기독교인(christ tansforming culture)도 긴장을 알아야 한다. 자유는 이 긴장을 거쳐 이루어진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긴장은 '바짝' 긴장하는 것이 아니며 '풀어야 할' 긴장도 아니다. 긴장은 다름이 일으키는 역동성이다.

물론 세상이 기독교인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갈수록 세상은 같음의 질서를 이루는 것 같다. 같은 것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거대한 권세를 이루고, 다른 것을 소외시켜 마침내 다른 것을 같은 것 속으로 편입시키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의 분위기이다. 사실은, 교만한 기술 문명이 부리는 세도의 핵심도 거기에 있다. 너나 나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기독교

Cprgt()20 uiMdaGt 이화여자대학교 | IP:203.255.***.68 | Accessed 2021/08/11 10:43(KST)

인이나 아니나 사는 방식을 모두 똑같이 만든다. 그것이 오늘날 기술 문화의 위력이고 자본주의의 위력이다. 그러나 어쨌든 종교만은 달라야 한다. 뭔가 다른 걸 갖고 있지 않으면 세상은 긴장이 사라져 망하고 만다. 다 잘되는 것 같지만 죽음으로 가는 것일 수 있다. 교회가 자본주의의 원리에 따라, 또는 진리 없이 테크닉만 발달하여 성장한다면, 신선한 생명의 바람은 어디서 쪼일 수 있을까?

세상 돌아가는 방식과 다른 점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세상 돌아가는 방식의 핵심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인간 관계의 핵심은 무엇인가? 행위와 삶을 무엇으로 정당화하는가 하는 것이다. 이른바 Justification의 문제다. 적어도 성서가 본 것은 그것이다. 사람은 사람다움의 문제를 안고 있고 사람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옳은 것을 찾게 된다. 또, 옳다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일일이 옳다고 인정받기 어려우니까 대체로 뭐가 옳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관습으로 인정되어 있다. 그게 이른바 도덕 규범이다. 도덕 규범을 지킴으로 사람은 자기 이기심을 억제하고 사회를 유지한다. 그러한 도덕 규범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는 자동적으로 지키며 산다. 그러면서 암암리에 정당화된다. 나아가 사람 사이를 규제하는 도덕 규범을 넘어 선을 이루는 도덕 규범을 지키면 의인으로 남의 인정을 받게 된다. 그것이 율법의 세계가 이루는 최고의 정당화 차원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도덕 규범이란 결국 사람들이 서로 옳다고 인정한 것들이다. 그러나 그것을 옳다고 인정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문제 삼지 않는다. 그게 죄인들이란 점을 일반 윤리에서는 모른다. 어쨌든 '정당화'하는 방식 그것이 그 사회 사람들이 사는 방식 곧 에토스의 핵심이다.

우리 사회는 무엇으로 사람을 정당화하는가? 무엇으로 남의 인정을 받는가? 어떻게 하면 남이 나를 알아주는가? 이 문제를 가장 깊고 고상하게 해결하려는 것이 '선한 행위를 했다고 알아주는 것'이다. 바울이 반대한 justification by the work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이룩한 최초의 열매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판한 바울은 인간 사회의 기초를 흔든 것이다. '행함으로 의롭게 여김받음'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인정의 주체를 사람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기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사람에게서 인정받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다.

Cprgt()20 uiMdaGt 이화여자대학교 | IP:203.255.***.68 | Accessed 2021/08/11 10:43(KST)

정당화의 문제는 결국 누가 정당화해 주는가 하는 문제다. 누구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아담의 선악과 이후, 인간 사회는 사람이 사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것의 결정체가,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한 행위를 해서 인정받는 사회는 그래도 상당히 성숙한 사회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좀더 표피적이다. 정당화의 문제를 거기까지 끌고 가지 않는다. 그 문제까지 밀고 가서 '행함으로 의롭게 여김받음'을 포기해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는' 신앙의 진수를 알게 되지만 우리의 일상 생활은 좀더 표피적인 데 있다. 우리 사회는 거기에 다다를 겨를도 없이 좀더 표피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무엇으로 인정을 받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재물과 사회적 직위의 문제다. 이 문제에서 성공하면 인정받고 성공치 못하면 뭐가 잘못된 사람이 된다. 성공만 하면 뭔가가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의 삶과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말이다. 성공의 과정이 나쁘면 사회적으로 단죄하는 분위기가 없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물론 뭔가 있으니까 성공했으리라. 그러나 그 뭔가가 정말 뭔지 살필 겨를도 없다. 그 뭔가가 정말 진리와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능력 있는 자는 그 자체로 권위를 갖고 그가 지니는 재생산력 앞에 많은 사람이 머리를 조아린다. 그렇게 해서 세상 풍조는 성공의 이데올로기에 충성하게 한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다. 성공한 교인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긴다. 성공한 사람에 대한 경탄과 축복 속에는 성공을 정당화하고 의롭게 여기는 행위가 들어 있다. 성공만 하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정의가 성공에 있고 재물과 권세에 있다. 능력 있는 자가 의로운 자다. 현실적인 능력으로 의롭게 여김받는다. '성공으로 의롭게 됨'(Justification by the success)이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음'이라는 정신 혁명을 선포하면서 '행위로 의롭게 여김받는 것'을 주된 공격물로 삼았다. 그 문제는 기독교의 핵심인데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별로 중시되지 않는다. 그 까닭은 '성공으로 의롭게 여김받는' 차원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선한 행위를 했다고 의롭게 되는' 차원을 비판하는 것은 너무 차원 높고 사치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인 것 같다. 능력과 성공으로 의롭게 되는 구조에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는 참 신앙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에 있을까? 누가 말한 대로 우리는 신앙이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Cprgt()20 uiMdaCt | 이화여자대학교 | IP:203.255.***.68 | Accessed 2021/08/11 10:43(KST)

그런데 정당화의 문제를 믿음으로 풀지 않는 모든 시도는 그 시도를 정당화할 또 다른 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성공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또 하나의 원리가 있다. 그것은 '좋은 게 좋다'는 의식이다. 앞의 좋은 것(goods)은 실용 가치 곧 재화를 말하고 뒤의 좋은 것(good)은 윤리 가치를 말한다. 좋은 게 좋다는 의식은 실용 가치와 윤리 가치의 혼동이다. 실용 가치가 곧 궁극 가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의식은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정의를 세우지 못한 데서 온 것이리라. '마침내는 옳은 게 좋다'는 의식이 이룩되어야 하는 데 오랜 세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근대사는 좌절의 역사가 아닌가? 좋은 뜻과 기개를 가졌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뜻이 자꾸 좌절된 역사가 아니던가? 그러므로 좋은 게 좋다는 의식은 우리의 쓰라린 경험에서 나온 처세술이요 일종의 체념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옳은 게 좋다는 확신이 뿌리내려야 한다. 그래야 사람 살 만한 세상이 된다. 그런데 오늘날 '좋은 게 좋다'는 그릇된 가치 의식을 자꾸 불어넣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물론 거기에는 기술 사회의 영향이 있다. 기술과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을 늘려 많은 공헌을 했다. 그리고 상품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은 객관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나름대로 경제의 민주화에 기여했다. 시장 구조가 갖는 민주주의 측면은 수요자들이 상품 평가에 참여한다는 점에 있다. 이른바 가격 메커니즘은 상품경제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시장 경제는 애초에 상품 가치 이외에 다른 모든 가치도 가격으로 표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 불행하게도 모든 것이 상품화되고 있다. 물건뿐 아니라 사람의 능력, 사람의 외모, 광고에 보면 사람의 인품과 외모와 사랑도 상품화되어 간다. 물건 파는 데 그런 것들이 동원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다. 그러니 모든 가치(value)가 가격(price)으로 표시되는 시대인 셈이다. 돈만 있으면 사람도 사고 뭐든지 할 수 있다. 모든 가치를 실용 가치 위주로 평가하고 그 실용 가치를 궁극 가치와 혼동한다. 잘 살게 되었다는 인식이 모든 의미 물음을 잠재운다. 때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 줄 느끼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주위에서 모두 그렇게 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규범이 있을까? 그러나 '좋은 게 좋다'는 의식은 체념이다. 아주 편리한 공식이지만 그 공식 속에는 삶의 의미를 포기한 체념이 들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Cprgt()20 uiMdaGt 이화여자대학교 | IP:203.255.***.68 | Accessed 2021/08/11 10:43(KST)

이 삶의 뜻을 주고, 삶의 뜻이 따라야 할 뜻을 주며, 그러한 뜻은 적어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게 하지는 않는다.

Ⅲ. 거룩의 내용은 정의이다

성서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거룩한 하나님은 단순히 높은 데 계신 전지전능한 주권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데서 드러난다. 또는 이 역사 한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갸륵'이 '거룩'을 이룬다. 이사야, 호세아 예레미야 등 예언자들이 체험한 거룩한 하나님이 모두 그렇다. 이미 모세 오경에도 그런 이해가 나타난다.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의 찬가에 나타난 거룩의 개념도 그런 뜻이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또한 그것 아닌가?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거룩한 하나님은 정의와 구원의 하나님이다. 정의라는 개념과 구원이라는 개념은 늘 붙어다닌다. 정의 실현과 구원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적어도 성서의 하나님 이해는 그렇다. 구원받는 자의 형편도 마찬가지이다. 정의로운 자 또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어떻게든 의롭다고 인정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음'을 말한 것이다.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흔히 의로움의 문제를 빼놓고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구원의 구조 속에는 의인이 되는 과정 곧 정의가 서는 과정이 있다. 최후의 정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정의가 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다. 또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의인이라 인정받는다는 얘기다 : "나를 인정하는 자는 내가 그를 인정하리라."

그만큼 정의의 문제 또는 의인의 문제가 구원의 문제와 섞여 있다.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체험 곧 거룩한 체험은 구원의 체험이지만 동시에 정의에 눈뜨는 체험이다. 죄의 문제에 눈뜨는 것이 그것이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 예수를 인정하는 것도 그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아는 것은 나의 죄를 아는 것이요 동시에 이 사회의 구조적인 죄를 아는 것이다. 원죄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통해 흘러들어 온다.

Cprgt()20 uiMdaGt 이화여자대학교 | IP:203.255.***.68 | Accessed 2021/08/11 10:43(KST)

그리고 '남'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에서 드러난다. 이 사회의 구조적인 죄를 인식함으로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도달한다. 그리고 나의 죄를 알 때 오히려 사회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고 사회에 애정을 갖는다. 거기서 사회를 정의롭게 바꿀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사회를 바꾸는 신앙의 힘은 나의 죄와 사회의 죄의 깊이를 알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를 인정하는 데서 온다.

거룩은 정의를 넘어서 있으며 정의를 지탱한다. 거룩한 체험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정의를 넘어 서 있는 것만이 정의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은혜스럽게 한다'는 것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다. 정의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정의를 완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은혜의 체험은 정의와 무관한 게 아니라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의인이 되는 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진 느낌이다.

Ⅳ.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우리는 가능한 대로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조를 바꾸어야 한다. 이 세상이 정의롭지 않으면 참 기독교인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세상이 더럽다고 아예 피해 버려도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고, 세상에서 잘살자니 불의에 동조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이다. 세상이 온통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세상의 최고 목표는 '선한 행위로 인정받는 것'이다. 그것이 세상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다른 점이다. 그러나 알고 보면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 정의를 더욱 뿌리깊게 개혁한다. '선'의 내용을 끊임없이 우상 파괴함으로써 정의를 발전시킨다. 하나님의 목숨의 대가로 죄를 용서받은 기독교인이 맡아야 할 점은 그것이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라도 세상 정의를 확립하는 일을 도와야 한다. 그 일을 위해 영성은 합리성과 협력해야 한다. 합리성의 도움 없이 구체적인 정의는 불가능하다. 사회과학이나 다른 학문과 연대하여 구체적인 정의를 이루어야 한다. 세상 정의가 없는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는 너무 어렵다. 사회윤리는 기독교윤리의 환경이다. 환경이 나빠도 잘사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소수의 영웅이고 대부분은 환경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 세상의 정의가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지만 세

Cprgt()20 uiMdaGt 이화여자대학교 | IP:203.255.***.68 | Accessed 2021/08/11 10:43(KST)

상 정의에 무관한 구원도 있을 수 없다.

기독교인이 교회에서 사는가, 세상에서 사는가? 우리 사는 곳은 세상이다. 이 사회이다. 그리고 이 사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곳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만나고 세상에서 그 뜻을 따른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내용이 채워진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뭐가 이루어지는지는 믿음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렇다. 믿음의 언어는 '상징'인데 그 상징은 이 세상의 삶의 '경험'을 통해 풀린다는 말이다. 상징이 구체적인 뜻을 얻는 것은 세상 경험을 통해서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형성되는 곳은 교회이면서 동시에 세상이다. 교회에서 신비한 상징을 얻고 세상에서 그 상징을 푼다. 상징의 내용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뭐로 푸느냐에 달렸다. 그러므로 믿음은 결국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살 곳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따로 세상 따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서 거룩을 말하면서 세상에서 저지르는 불의에 무감각하지나 않은지? 그럴 때 거룩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 그리고 거룩이 왜곡되면 마침내 교회가 세상과 같이 놀아나는 것이다. 교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정당화하면서 세상을 따라간다. 거룩이 세상을 본받는 데 편리한 도구가 되기까지 한다. 거룩을 말하면서 불의를 저지르는 이중인격자, 그러면서도 그 불의를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그런 무서운 죄를 우리는 범하고 있지나 않은가? 종교가 타락하면 훨씬 무섭다. 타락한 신앙양심은 양심보다 훨씬 무감각하다. 세상사람들은 불의를 저지를 때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러나 신앙 양심은 양심 위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신앙양심이 타락하면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불의를 저지른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사회가 사람을 악하게 만든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나 사회의 책임이 곧 우리의 책임이다. 결국은 사람이 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인은 무한 책임을 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무한 책임을 진 기독교인에게 역사는 언제나 희망이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사람에게도 희망을 갖는다.

Cprgt()20 uiMdaGt 이화여자대학교 | IP:203.255.***.68 | Accessed 2021/08/11 10:43(KST)